

# 자원, 그 무소불위의 권력에 세계가 떠난다!

## 희토류로 불거진 글로벌 자원 전쟁

송원이 | 차유키고카

강원도 양양 일대 폐(廢) 철광석 광산에 희소 광물인 희토류가 매장되어 상업 생산에 착수한다는 소식이 있다. 매장량이 매우 적은 희소금속의 하나로, 워낙 희귀해 세분화조차 번거로워 붙여진 이름, 희토류. 희토류로 촉발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생각할 때,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 땅에서 전해진 이 새로운 가능성은 반가울 수밖에 없다. 희토류는 전 기자동차와 풍력발전기, LCD, 미사일 등을 만드는 핵심 원료이다.

### 희토류로 중국에 무릎 꿇은 일본

중국과 일본간 오랜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 명 다오위타오)는 2010년 9월, 일본 순치선이 중국 어선을 나포하면서 그 갈등이 격앙으로 차달았다. 중국의 정치, 경제적 초강수 압박이 지속된 가운데, 이 분쟁의 1차 마침표를 찍은 장본인은 바로 희토류. 중국이 희토류의 대일 수출 길을 전면 금지하면서 사실상 일본이 백기를 든 것이다. 이는 경제대국 일본과 떠오르는 신흥대국 중국의 바뀐 위상을 확인시켜 준 획기적 사건임과 동시에,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떠오른 자원의 가치를 설명한 사건이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97%를 독식하고 있으며, 일본은 희토류 전량을 중국에 의존한다. 이미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희토류 가격은 중국이 올해 10월, 희토류 수출을 지난해보다 40% 줄이겠다고 발표한 이래 더욱 폭등하고 있다. 전 세계 첨단제품 생산 현장은 수급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아우성이다.

희토류는 전 세계 국가들의 자원 확보 전략에 경종을 울렸다. 미국은 1990년대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경쟁력을 상실하고 문을 닫은 희토류 광산, 마운틴 패스의 채굴을 2011년 초반부터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EU 집행위는 '희토류 공급은 유럽 산업 정책의 중요한 요소'라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대중국 압박 태세에 돌입했다. 일본은 희토류를 대체할 재료 개발에 착수했



고, 일본 기업들은 중국 생산 비율을 낮춰 여타 동남아 시장에 생산 거점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 볼리비아 리튬 개발 MOU, 기술력 점수 컸다

문제는 우리나라다. 부존자원이 빈약해 주요 에너지 자원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한국 광물자원공사와 기업들이 공조하여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앞장서 안정적인 자원 확보망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전략이다. 특히 우리의 기술력은 자원 개발 파트너로서의 역량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광산의 리튬 산업화 연구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이 대표적인 예. 우유니 소금광산은 세계 리튬 매장량의 절반이 매장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마그네슘 등 불순물이 고농도로 존재하여 칠레, 아르헨티나 등 주변국들에 비해 개발 여건이 불리하다. 그래서 볼리비아는 공동개발 파트너를 찾기 위해 각국에 관련 기술 연구 성과물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비록 기대했던 실질적 개발권 획득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지만, 우리나라가 경쟁국보다 한 발 앞선 것은 분명하다. 리튬은 희토류와 함께 전 세계가 탐내는 희소금속 중 하나다.

또한 한국광물자원공사는 국내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니제르와 캐나다의 우라늄 광산 지분을 인수했다. 지난 6월에는 포스코와 중국 네이멍구에 있는 희토류 생산업체 포두영신희토유한공사 지분 60%도 인수했다. 그러나 지분 인수 비용이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최근에는 해외 광산 직접 개발 방식도 검토 중이다.

### 유용 광물 많은 황금의 땅, 북한

그러나 우리나라가 자원 개발에서 간과하는 핵심 파트너가 지근거리에 있다. 바로 북한이다. 북한은 이미 19세기 중국과 미국, 영국, 러시아가 '노다지'를 캐며 자원 약탈을 벌일 만큼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

다. 대한광업진흥공사 자료에 따르면, 북한에 매장된 주요 광물의 잠재 가치는 3,719조 원에 이른다. 북한 국토의 80% 지역에 200여 종의 유용 광물이 매장되어 있으며, 마그네사이트(40억t, 세계 2위)와 흑연(200만t, 세계 3위)을 비롯해 매장량 기준으로 세계 10위 안에 드는 광물이 7종이나 된다. 그러나 19세기와 판이하게 달라진 상황은 이 자원들을 중국이 독식하고 있다는 점. 중국은 북한 주요 광물 개발의 70%를 독차지하며, 대북 투자의 70%를 광물 개발에 집중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중국은 북한 광물들을 국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한다. 북한에 대한 전 세계 압박이 거세질수록 북한은 경제적, 정치적으로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중국이 광물 수입 계약을 할 때, 북한 기반시설 및 전력을 공급하는 등의 조건을 내걸기 때문이다.

남북 첫 번째 자원 협력 사업으로 기록된 북한 점촌 흑연광산 공동 개발은 2007년 말 이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 북한을 압박하든 지원하든 우리나라 대북한 정책이 정치적 논리만을 앞세우는 한 남북 공동 자원 개발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다. 그 사이 중국만 어부지리를 얻고 있는 셈이다.

자원이 한 국가의 힘, 나아가 안보 문제로까지 연결되는 상황은 식량 자원도 마찬가지다. 올해 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을 경험한 러시아는 밀 생산에 차질을 빚으며 연말까지 곡물 수출을 전면 중단을 선언했고, 이는 밀 가격의 세계적인 폭등을 불러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30%에 불과하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곡물 수출국이 식량을 우리나라와의 협상 히든카드로 내세운다면, 우리도 중국에 무릎 꿇은 일본의 입장을 십분 이해하게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단순히 식량자원을 '수출입 품목 중 하나'로 치부하며, 무작정 시장 경제 논리로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 **TTA**